

2023 AUTUMN Vol.59

박물관풍경

風景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되돌리다

알렌별장 터 송의동 107번지

사진 조오다(편집위원)



CONTENTS

**표지스토리**

2022년 가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익동으로 조사를 나섰다.

학익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기 전에 근대건축물을 조사하고 건물 도면을 그려 기록으로 남겼다.

04 | **박물관 소식**06 | **소통이 미래다**08 | **기획 I**
키워드로 읽는 학익동의 역사12 | **기획 II**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의 건축16 | **기획 III**
이제는 추억이 될 내 동네, '학익동'20 | **인천인터뷰**
⑦ 인천에서 요가를,
인천아쉬탕가요가 하윤진24 | **인천기자수첩**
③ 집이나 '때려'지으면 됐지28 | **시네마인천**
⑨ <그대를 사랑합니다>32 | **전시 리뷰 & 프리뷰**34 | **박물관 일정**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손장원 **발행일** 2023년 9월 10일

편집위원 김성이, 김유나, 배성수, 이성용, 정미리, 조오다, 최영애 **교정교열** 김시연 **제호** 이태용 **표지그림** 김예지

디자인·인쇄 디자인하다MK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전화 032-440-6759 **이메일** ic-museum@naver.com **구독신청** 전화 혹은 이메일

MUSEUM NEWS



!!!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 전시 연계 사진 이벤트 진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지난 6월부터 하나의 사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상이몽> 전시를 개최하고, 전시 연계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는 전시실에 있는 청동향로 하나를 재해석해 촬영하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SNS에 올리는 것인데 총 45명이 참여하였다. <동상이몽> 전시는 9월 8일부터 인천시청 역 열린박물관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으로, 이벤트에 출품된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 인천의 역사 선생님들을 박물관이 응원합니다!

7월 8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인천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총집합했다.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 지역사 특강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인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번 교육은 교사들의 역사적 소양과 전문성을 높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하였다.



!!! 평범한 고등학생인 내가 이 세계에선 세기말 대학생?!

여름방학을 맞아해 2007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상상공작소'를 진행했다. '1990년대 대학생'이라는 콘셉트로 1990년대 역사·문화를 배워보고, 부모님의 학창 시절 유행했던 음악·패션·통신수단을 접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제작한 작은 전시를 8월 말까지 선보였다.



!!! 인천시지정문화재 '철제범종' 건강관리 받는 날

인천시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중국철제범종 3점이 건강관리를 받는 날이다. 야외에 전시된 유물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특성상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는데, 특히나 표면에 쌓이는 먼지나 거미줄 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오래 방치 될 경우 유물은 금세 본연의 모습을 잃고 만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박물관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물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표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물이 오랜 시간 지금의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를 이어갈 것이다.

MUSEUM NEWS



집에서 손쉽게 전시를 만날 수 있다고?

송암미술관은 지난 6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송암미술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마트송암미술관 서비스는 전시 안내 웹북, VR 미술관, e-뮤지엄 등으로 집에서도 전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오른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사이트로 연결된다.



검단선사박물관에 가면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검단선사박물관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을 운영했다. 선사시대에 관해 배우고 머그잔을 만드는 체험과 전시실에서 토기를 직접 발굴하고 복원해 보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여름처럼 뜨거운 열기 속에 6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



모두가 행복한 박물관 관람 환경 만들기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모든 사람이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진 이번 공사에서는 장애인 주차 공간 개선,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칙칙폭폭 ~ 근대 도시 인천으로 떠나요!

인천도시역사관 상설전시 활동지가 새롭게 바뀌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던 귀여운 기차 캐릭터가 개항 이후 새롭게 전해진 문물, 외국인들의 공간 조계, 이국적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전시실 유물들과 근대의 역사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오는 주말, 경인선 기차와 함께 근대 도시 인천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04:01 A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지난 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



김창석 구독자님

나의 고향 화수 · 화평동을 다룬 전시가 참 반갑습니다. 옛 생각에 전시를 몇 번이나 보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쉽지만, 박물관에서 기록해 주시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 떨어지는 듯합니다.

최대한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누구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59호 필자인 곽은비님처럼 지역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시민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



송은미 구독자님

인천시립박물관을 역사 탐방으로 알게 되어서 기획 전시가 바뀔 때마다 방문하곤 합니다. 기관에 비치된 <박물관 풍경>을 보며 방문 못 했을 때의 아쉬움도 달래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 역사 · 문화 현장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민들의 사랑방이 되어서 든든히 있어 주길 바랍니다.

애정을 가져주시니 <박물관풍경>이 눈에 쏙 보이는 거겠죠? ♡ㄴ (●●●●) ♡ 새로운 소통 공간! 인천의 독립 서점 곳곳에서도 배포되니 보물찾기에 도전해보세요!



박물관풍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QR코드를 찍으면 독자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열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곁을 떠날, 학익동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인 문학산 언저리 동네, 학익동
이름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훨훨 날아가버리기 전에, 그 흔적이라도 남겨보려 합니다.

사진 임기웅(작가)





▲ 1927년 학익고인돌 발굴 모습 © 국립중앙도서관

키워드로 읽는 학익동의 역사

글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학익고인돌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사시대 유적

학익동의 역사적 연원을 살폈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현재 '학익고인돌'이라 부르는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대개 청동기시대 족장 무덤으로 추정하는 고인돌이 학익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늦어도 청동기시대부터 학익동에 사람이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7년,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고고학 입장에서 일본의 우월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고적조사사업에서 학익고인돌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지금의 인천구치소 부근에서 고인돌을 발굴하고 촬영한 유리건판이 전한다.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사와 준이치(澤俊一) 등이 발굴 조사에 참여하여 '경기 부천 학익리 지석묘'라는 이름으로 유리건판을 남겼는데, 총 3기에 달하는 고인돌군의 원경

과 발굴 전후 모습, 덮개돌과 받침돌, 출토 유물 등을 상세히 담아냈다. 한편 1929년 오카다 미쓰기(岡田貢)는 학익동에 고인돌 8기, 1933년 『인천부사』에서는 7기로 전하고 있어, 학익동에는 1927년 발굴된 3기보다 더 많은 수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익동에 남겨진 청동기 선조의 흔적은 발굴 이후 방치되다가,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학익고인돌은 1927년 발굴되었던 3기 중에서 2기이다. 이 중 ‘학익고인돌Ⅰ’은 인천소년교도소 확장으로 인하여 1971년 자유공원 아래 인천시립박물관(지금의 제물포구락부 소재)으로 옮겼다가 1990년 인천시립박물관이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다른 1기인 ‘학익고인돌Ⅱ’는 1998년 인천지방법원 신축 과정에서 재발굴되어 마찬가지로 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겼다.

이처럼 지금 전해지는 학익고인들은 공교롭게도 원래 장소인 학익동이 아닌 옥련동에 있다. 이제라도 본래 위치인 학익동으로 옮겨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존과 관리의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27년 학익동 소재 인천뮤지엄파크로 인천시립박물관이 이전 개관할 때, 학익고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대로 옥련동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과 함께 이전하여 위치는 아닐지라도 학익동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명 '학익' 제운리에서 학익리, 학익동까지

학익동(鶴翼洞)은 문학산 줄기인 연경산 아래(북쪽) 동네다. 연경산은 학익산(鶴翼山)이라고도 불리는데, 멀리서 보면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이어서 학익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학익산에서 연유하여 ‘학익’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듯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진 느낌을 자아낸다.

하지만 조선 시대 지리지자료에서 학익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 공식 지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조선 후기 기록에서는 지금의 학익동 일대를 제운리(霽雲里)라 불렀다. 숙종 때 유명 학자였던 제운 이세주(霽雲 李世冑, 1626~1710)가 고을 이름을 따서 호를 제운이라고 짓고 제운리에 은거하며 제자를 길러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1879년에 세운 홍우순(洪祐順, 1791~1862) 신도비에 제운리에서 장사지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운리라는 지명이 조선 후기 때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堤堰名內需自堤堰	山名文鶴山	鶴翅里	承基里	官廳里	鄉校里	山城里	鶴山里	洞里村名道章里	面名舊邑面	種別地名	京畿道仁川府郡舊邑面
										文	
										備	
鶴翅洞	山城里							舊邑面	仁川府		

지명 '학익'이 등장한 것은 1910년경 편찬된 『조선지리지』부터다. 이 자료에는 인천부 구읍면에 '학익리(鶴翼里)'가 소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지명인 학익동(鶴翼洞)과 한자가 조금 다르지만, 뜻이 통한다. 이후 발행된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구읍면 학익동(鶴翼洞)으로 기록되어 있고, 1914년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천군에 속하게 되면서 부천군 문학면 학익리로 변화했다. 그러다가 1936년 소위 인천부의 제1차 부역 확장 때 학익리가 다시 인천부로 환원되면서 지명이 학익정(鶴翼町)으로 바뀐다. 인근의 용정리(지금의 용현동)가 히노데정(日之出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으로 바뀐 것과 달리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익이라는 지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방 이후 학익정은 학익동으로 다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병참기지 일제강점기 군수공장 제국제마주식회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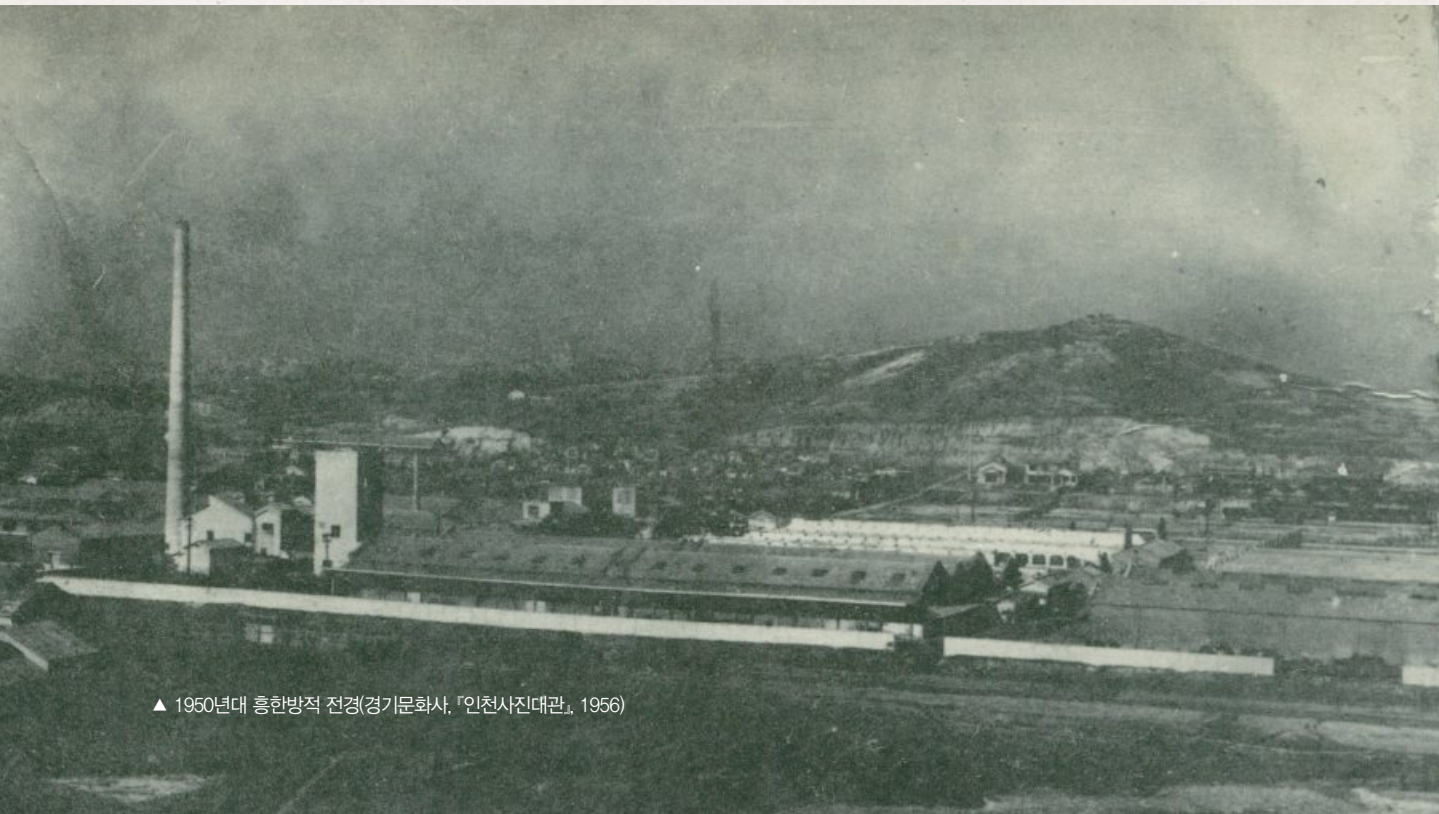
1937년 히노데정과 학익정 일대 해안가를 매입하여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인천항과 인접하고 수인

선이 지나는 교통의 이점이 있었다. 1940년 신문 기사에서는 배급기지, 병참기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 재벌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930년 후반부터 1940년 초반 학익정에는 일선염공, 오타후쿠와타, 제국제마, 히타치제작소, 조선중앙전기제작소, 다나카공업, 일본농약 등 굴지의 일본 기업들이 들어섰다. 동서로 긴 공업용지에 속속들이 공장이 들어섰고, 공업용지의 남쪽과 북쪽에 주택지가 형성되었다.

여러 기업 중에서 사택 철거를 앞둔 제국제마의 사례를 살펴볼 도록 하겠다. 제국제마는 원래 마사, 마면 직물, 어망 기타 마직류의 제조 가공을 주 업무로 하였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 군수 차량을 덮는 덮개 군복 등 군수 물자를 생산하였다.

제국제마 인천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1959년 제국제마에서 편찬한 『50년사』에 상세하다. 제국제마는 1907년부터 북한에서 아마(亞麻)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일본 공장으로 공급하였다. 1934년 부산부에 제포(製布) 공장을 마련하였으나 일본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 가공하는 형태였고 규모도 작았다. 원료 수송의 문제와 제품의 현지화 요청으로 인하여 제국제마




▲ 1950년대 흥한방적 전경(경기문화사, 『인천사진대관』, 1956)

는 조선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세운다. 군 당국과 인천부의 후원을 받은 제국제마는 1939년 부지를 매입하여 인천공장 조성 시작하였다. 1940년 4월 경성지점 내에 인천공장 건설사무소를 설치한 제국제마는 1942년 4월 인천공장 제1기 공사를 완료하고 아마 방직을 위한 정방기를 두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군용 마 제품의 수요가 많아졌으나, 심각한 자재난으로 인하여 인천공장 제2기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산 대마를 원료로 하는 제강(製綱)공장으로 바꾸려다가 청주에 제강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인천공장 제3기 공사로 전환하여 면방기와 평직기를 설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방 이후 인천시 군정청은 적산관리국을 신설하고 관리인을 두어 기존 산업시설을 운영하게 했다. 조선제마로 이름을 바꾼 제국제마는 동양방직 학익공장이 되었다가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1·4후퇴 때 공장 가동이 멈추었다가 인천 수복 이후 종업원들이 복귀하여 일부 공장을 가동하였다. 전쟁 중이던 1952년 종업원 대표였던 장용운이 불하받은 것을 1953년 반민족행위자 박흥식이 인수하여 이종현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흥한방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아파트 골목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아파트

흥한방직 일부는 한일방직으로, 일부는 화신레나운을 거쳐 동일레나운으로 바뀌는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1999년 한일방직 공장 부지에는 동아풍림아파트가 들어섰고, 2010년 동일레나운 공장 부지에는 엑슬루타워가 들어섰다. 반면 길 건너편 사택 일부와 동일레나운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션아울렛이 남아 있다. 하이패션아울렛을 에워싼 제국제마 사택은 '학익3구역 재개발 청비 사업'으로 인하여 한 채도 남김없이 사라질 예정이다.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해방 이후 인천 섬유산업에 크게 이바지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새겨진 공간이 곧 사라진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학익동에 들어선 산업시설들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다. 골목이 사라진 자리에는 홈플러스·인하대학교 제1생활관·케이제이로지스틱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곳이 있는가 하면, 1984년 장미아파트가 준공된 이래 풍림아이원·두산위브·엑슬루타워·동아풍림아파트 등이 세워졌다. 장미아파트는 또다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제국제마 사택 부지에는 푸르지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1968년 준공한 동양화학 자리에도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가 개발 중이다. 선사시대부터 삶의 흔적이 확인되는 학익동 일대는 현재 급격히 변화 중이다. 지금 이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공장 골목을 본 기억조차 없을 듯하다.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학익산의 모습은 여전히 마을을 감싼 학의 날개처럼 보일까 궁금해진다. 



▲ 제국제마 터 © 조오다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의 건축

글 홍현도(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

도면 손장원(인천시립박물관장)

제국제마주식회사와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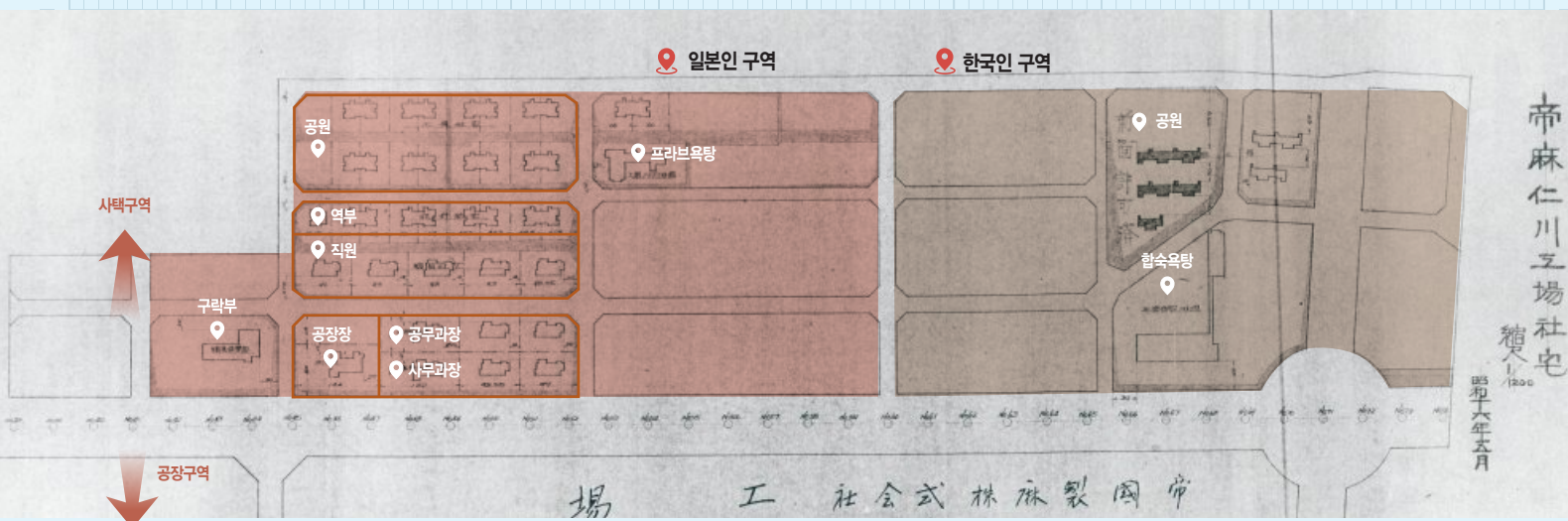
제국제마주식회사는 1939년 인천에 진출하였다. 당시 제국제마주식회사는 함경남도 고원지대에 아마를 재배하고 이것을 원료로 하는 제선공장을 설치하였으며, 조선총독부의 아마중산계획에 따라 제마방적종합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천의 부지를 매수해서 공장을 짓기로 한다. 공장은 6,500평으로 건설비는 약 200만 원이며 1939년 9월에 착공, 1940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공장은 제마방적종합공장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최대의 제마공장이었다. 제국제마주식회사의 주요 생산물은 마사(麻絲)와 함께 마면직물로 군용 의류와 군장들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 내에는 대규모 합숙소가 있었고, 공장 밖으로도 사택과 합숙소가 있었다.

제국제마주식회사가 사택 건설을 위해 경기도에 공작물신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1941년 5월 1일이었다. 당시 신청

장소는 인천시가지계획 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 내로 학익정 314, 261, 262, 440, 315번지와 산 25번지였다.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은 2장으로 하나는 공장을 포함한 제국제마주식회사 인천공장 전체 배치도이며, 나머지는 사택 부분의 배치도였다. 전체 배치도는 신청서가 제출되기 1년 전인 1940년 5월 10일에 작성된 것이다. 도면에는 현재 소성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구역을 달리한 공장과 사택이 그려져 있다. 사택 구역은 동서를 나누어 동쪽은 5개, 서쪽은 3개의 블록에 사택을 배치하였다. 서쪽은 내지인 즉 일본인들 구역이며 공장장, 과장, 사원, 작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구락부와 집회소가 있다. 동쪽의 사택은 반도인 즉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작업원 사택과 남공(男工) 합숙소가 있다.

사택 배치도는 사택 구역만을 그린 것으로 전체 배치도와 구성에 차이가 있다. 사택 배치도에서 일본인 사택 중 과장 사택은 사무과장과 공무과장 사택으로, 사원은 직원, 작업원은 역부(役付)와 공원(工員) 사택으로 바뀐다. 사택의 건립 동수도 30

▼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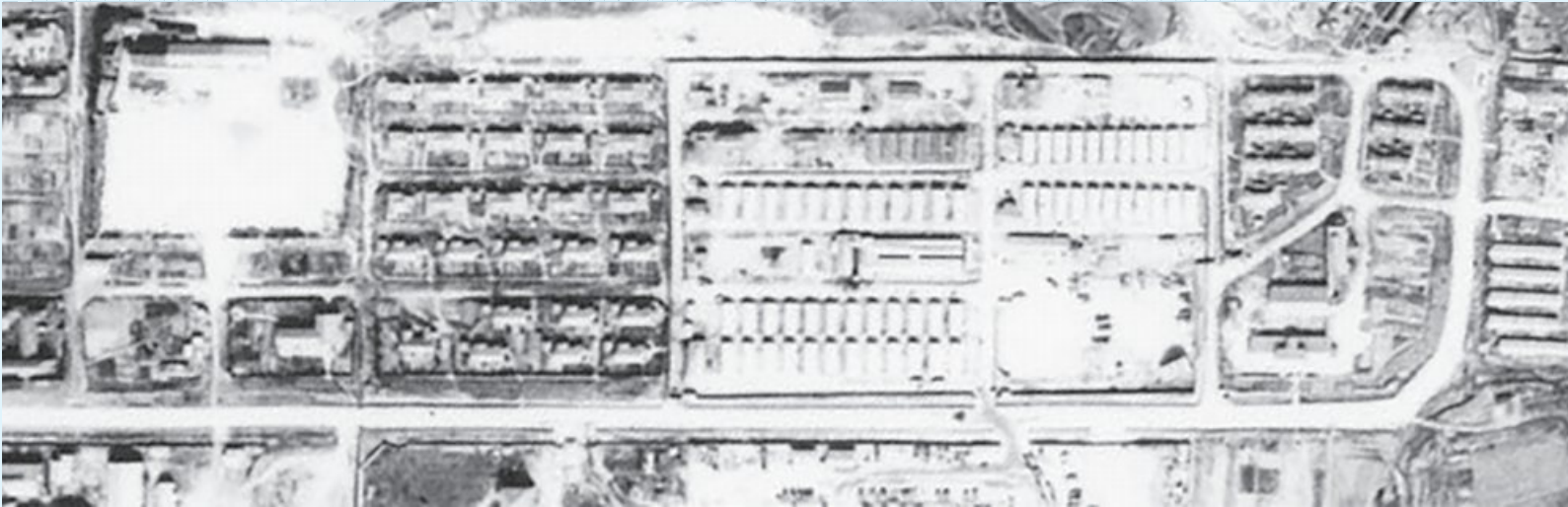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 도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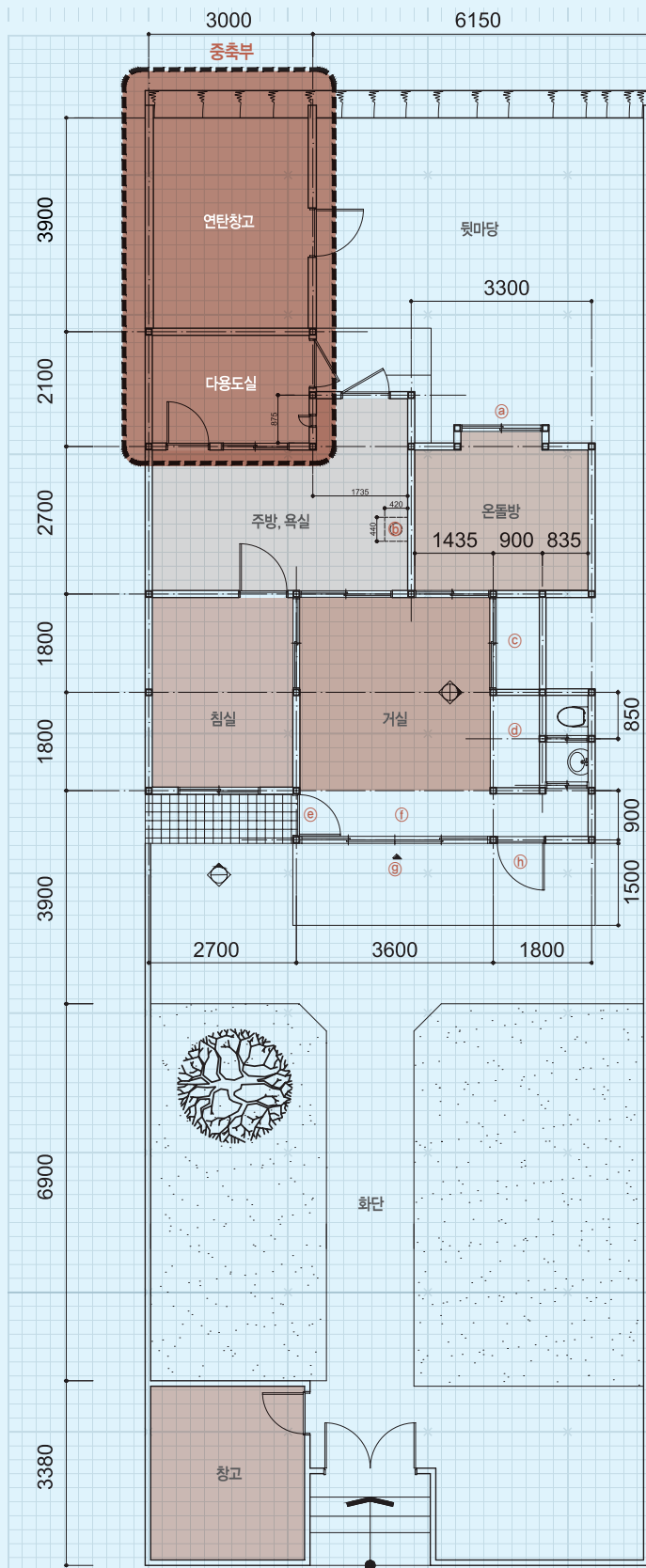
	전체 배치도			사택 배치도		
	구분	형태	규모	구분	형태	구분
일본인	공장장	단독	1	공장장	단독	1
	과장		2	사무과장		3
	사원		9	공무과장		3
	작업원	2호 연립	16 (27)	직원	2호 연립	5
				역부		5 (9호)
	구락부	단독	1	공원	단독	9 (18호)
한국인	집회소		1	구락부		1
	작업원	연립	6 (28)	프라브(フラブ)욕탕	단독	1
	남공 합숙소	단독	단독	공원	연립	5 (19)
				합숙욕탕	단독	1

동에서 28동으로 바뀌지만, 호수는 같다. 단지 동쪽에 있는 한국인 사택 역시 전체 배치도에서는 작업원과 남공 합숙소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체 배치도에서 작업원 사택과 남공 합숙소로 표시된 건물은 공원과 합숙욕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두 도면이 다른 것은 전체 배치도는 계획 단계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후 세부 내용이 바뀔에 따라 사택 배치도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택은 사택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1947년 항공사진에서 사택 배치도와 동일하게 지어진 사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인과 한국인을 분리하여 사택을 배치한 예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사택의 규모 한국인 사택은 최대 5호 연립인 것에 반해 일본인 사택 대부분은 2호 연립으로 별도의 대지를 구획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부속시설로도 일본인 사택에는 직원들의 모임 장소를 하는 구락부와 사우나 시설로 추정되는 욕탕이 있지만, 한국인 사택에는 합숙소와 욕탕뿐이다.

▼ 1947년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지 항공사진





- | | |
|---------------|-----------------|
| a 데마도 | b 연탄 아궁이(마루 아래) |
| c 오시이레 | d 도쿄노마 |
| e 최초의 출입문(추정) | f 엔가와 |
| g 현재 출입문 | h 보조 출입문 |

학익동 322-17번지 일본인 공원 사택

현재 학익동에는 철거를 앞둔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이 일부 남아 있다. 일본인 사택으로는 공원 사택이 2동 3호가 남았고, 한국인 사택은 도면에 나타난 3동 외에도 사택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남았다. 이러한 사택 중 학익동 322-17번지에 위치한 일본인을 위한 공원 사택은 2호 연립 중 동쪽 부분만 남아 있다.

사택이 있는 대지의 크기는 폭 9m, 깊이가 약 26m로 직사각형 형태로 건물은 대지의 2/3 뒤쪽에 위치한다. 건물 앞뒤로 마당을 갖고 있는데, 전면 마당은 깊이는 약 13m로 약 4m인 뒷마당의 3배가 넘는다. 대지는 경사지에 위치하여 앞쪽 길가에 축대를 쌓았으며, 뒷마당 끝으로도 축대가 있다. 전면 축대 중앙으로는 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 위의 대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대문 안 좌측으로는 담장과 인접하여 창고가 있다. 이 창고는 반지하 형태인데 처음 건설할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기도에 신청서가 접수된 1941년 당시는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공법이 공포되고 주요 건물에는 방공호를 갖추도록 하였다.

학익동 제국제마 사택 평면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22-17)



건물 전면으로는 창이 설치되어 있어 최근까지 이곳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래의 출입구는 창문 오른쪽 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른 사택에서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국제마 사택의 경우 입구 오른쪽에 화장실이 위치한다. 화장실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각각 별도의 공간에 있다. 출입문 왼쪽으로는 한옥의 툇마루와 같은 엔가와(縁側)와 연결된다.

엔가와 안쪽으로는 거실이 있는데 현재는 엔가와와 거실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건설 당시에는 두 공간이 창호로 구분되어 있었을 것이다. 거실은 가로세로 3.6m 정사각형으로 다다미 8장이 깔릴 수 있는 규모이다. 거실 한쪽에는 화장실과 벽을 맞대고 일본식 벽장인 오시이레(押入れ)와 족자나 꽃꽂이 등을 두는 도코노마(床の間)가 있다.

도코노마 반대편으로는 침실이 있다. 침실은 벽과 2쪽의 미닫이문으로 거실과 구분되어 있는데, 원래는 미닫이문으로 공간을 구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침실은 가로 2.7m, 세로 3.6m의 크기로 다다미 6장이 깔릴 수 있는 크기이다. 거실과 침실은 마당 쪽으로 향해 창이 나 있는데, 일부 사택에서 데마도(出窓)라고 불리는 튀어나오는 창호를 하고 있다.


거실 뒤쪽으로는 침실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침실은 가로 2.7m, 세로 3.3m 크기로 세로로는 다다미가 들어가기에 맞지만, 가로로는 크기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는 침실과 연결되는 아궁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온돌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지어진 사택 중 온돌을 사용한 예가 종종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다다미를 깔지 않은 온돌방으로 추정된다.

온돌방 옆으로는 주방이 위치한다. 주방에는 침실로 연결되는 아궁이와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주방은 가로 4.4m, 세로 2.7m로 첫 번째 침실보다 큰데, 이렇게 주방이 큰 것은 본래 이 주방공간 안에 욕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제마주식회사 작업원 사택과 유사한 규모인 인천 부영주택 및 관사와 사택들에서는 주방과 인접한 곳에 욕탕이 위치한다.

제국제마주식회사 공장 속 합숙소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지 남쪽으로는 공장이 있다. 공장은 실제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 구역과 휴게소·철공실·목공실·영선실 등이 위치한 서비스 구역, 마지막으로 합숙소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합숙소 구역은 가로로 긴 건물 5동이 병렬로 위치하며 좌·우 복도로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건물에는 취사장과 식당이 있으며, 두 번째 건물에는 욕탕과 탈의실이 있다. 나머지 세 번째 건물은 합숙소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복도를 두고 좌우로 각 11개의 방이 있어 건물당 22개의 방이 있으며, 합숙소에는 총 66개의 방이 있다. 건물 서측 복도에는 변소와 세면장, 건조장이 반복되어 위치한다. 이렇게 대규모 합숙소를 갖춘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섬유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이러한 대규모의 합숙소가 건설되었으며, 만석동 동양방직에도 대규모 합숙소가 확인된다.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천지역 사택 중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 구역을 나누고 사택의 규모 및 부속시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한국인 사택 시설 중에는 별도의 합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국제마주식회사 공장 내부 시설 중에서도 합숙소가 있다. 이러한 합숙시설에서는 강제징용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말 학익동에는 제국제마주식회사 외에도 히타치제작소·경성화학·일본농약·다나카공업 등 다수의 공장이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사택도 다수 지어졌으나 현재 학익동 인근에 남아 있는 사택은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뿐이며 공장은 일본농약주식회사의 건물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공장과 사택들은 광복 이후에도 인천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일한 곳으로 공업도시 인천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제는 추억이 될 내 동네, ‘학익동’

글·사진 곽은비(로컬 아키에이터)



▲ 학익동 국민주택과 그 뒤로 보이는 한일방직 자리 '동아풍림아파트'와 깃동 집창촌 자리 '학익 엑슬루타워'가 보인다.

학익동의 첫 기억

내 기억 속 학익동의 첫 풍경은 한일방직 자리에 세워진 회색 빛 고층의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노을 진 어느 날, 할머니 등에 업혀 인하부고 운동장에서 학익동을 바라봤다. 그때 할머니는 회색빛 아파트를 가리키며 “이제 저기로 이사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5살이었고, 이후 우리는 용현1동 골목 안 빌라에서 한일방직 자리에 지어진 동아풍림아파트 초기

입주 멤버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나는 요즘 소위 말하는 ‘아파트-키드’다. 아파트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 지금은 우리 집 외에도 아파트 단지로 풍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초등학교 일 당시 학익동은 스펙터클 그 자체였다.



▲ 학익초등학교 뒷문 입고 제국제마 시택 골목에서 촬영한 하얗길 사진

꺄동과 똥물, 순수했던 아파트 키드

내 유년 시절 기억 속 학익동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아파트 후문에 공장 단지가 있어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위험했기에 부모님과 함께해야만 후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후문 바로 앞에는 똥물 개천이 흘렀다. 평소에는 얇은 높이지만 비가 오면 가끔 범람했던 개천. 그 주위로는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개천이 바닷길인 학익유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탓인지 종종 갈매기가 보였다. 동네 주민마다 이 천(川)을 부르는 이름도 달랐다. 도랑, 똥물, 학익천, 비룡천 등등. 주말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동생과 함께 후문의 개천을 지나 연경산으로 향하곤 했다.

더 스펙터클 했던 건 정문이었다. 학익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등굣길은 아파트 정문에서 동일레나운 매장과 민트색으로 색칠된 공장 담벼락을 따라가는 코스였다. 이를 지나면 유명했던 ‘꺄동’ 길목의 시작이었고,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팻말이 머리 위로 보였다. 꺄동 거리 입구에는 오래된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학교로 등교할 수 있었다. 종종 횡단보도 앞 보도블록에 쓰러져 있는 아저씨들을 봤다. 노숙인이라기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기에 어린이였던 내 눈에 그들은 의문투성이였다.

엄마는 절대 꺄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 나는 말 잘 듣는 어린이였다. 그래서 하얗길은 국민주택 단지 골목길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를 같이하던 친구들과 모험심에 꺄동으로 향한 적이 있었다. 텅 빈 골목 안은 도보로 10분이면 빠르게 지나갈 골목 한 직선이었었는데, 그날 따라 거리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본 꺄동 골목은 고요했다. 이따금 저녁에 그 앞을 부모님과 지날 때는 정육점처럼 빨간 불빛으로 물든 현란한 거리를 봤었지만, 내가 직접 본 낮의 꺄동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동네 같았다. 드문드문 날씨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화려한 언니들을 본 것을 제외하면, 꺄동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는 중학생이 돼서야 깨달았고, 그때 내 의문들이 풀렸다. 꺄동 집창촌은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즈음 허물어지고 고층 아파트로 변했다. 똥물 개천도 복개되어 왕복 6차선 도로가 되고, 후문 공장들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 했을 스펙터클했던 어린 날, 그렇게 90년대생 아파트 키드는 날 것의 학익동에서 자랐고 옛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잊혀갔다.

학익초 66회 졸업생, 성인이 되다.

학익동에서 자라 성인이 되었다. 출퇴근길 지옥철에서 치이는 일상이 지겨워 집 주변에서 도보 출근이 가능한 인하대 후문 쪽에 취직했다. 그렇게 등하굣길은 출퇴근길이 되었다. 여느 때와 같이 지쳐 돌아오던 퇴근길의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와 달리 낯선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출근길에 둘러본 학익동도 너무 행했다. 찾아보니 재개발로 이주가 한창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주위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늦게 발견한 것이었다. 홀로 조급함을 느낀 나는 학익동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게 익숙한 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학익동 지킴이'라는 닉네임으로 사라져가는 학익동을 담았다. 무턱대고 수집해 둔 사진들을 올리려고 보니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 게 가장 나다운 방식일지 고민됐다. 일찍이 10대부터 지역사에 관심 있어 책을 읽고, 인연을 주제로 한 강의를 찾아다니며 공부했기에 역사적으로 학익동을 풀어낼 수도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공감과 재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렇게 나의 추억에 기대어 학익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익동에서 일평생 살아오며 간과한 점이 있었다. 바로 우리 집과 가까운 학익사거리 일대의 학익동만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학익동은 내 생각보다 더 넓었다. 동양화학공장과 그 너머 송암미술관, 미추홀의 유일한 바닷길 '학익유수지'까지도 학익동이었다. 내 생활권은 학익동의 아주 일부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바라본 것이었다. 그래서 학익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이 필요했다. 고민을 거친 후, 우선은 재개발로 곧 철거될, 나의 추억이 가장 깊은 학익초 옆부터 학익사거리까지의 '학익3구역'을 첫 번째 기록지로 정했다.





90년대생의 추억으로 기록한 학익동


아카이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학익초등학교 앞이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셋별문구' 앞에는 "1982년 문을 열었고 2022년 문을 닫고"라고 적혀 있었다. 울컥해지는 안내문을 보고 바로 셋별문구 사장님을 인터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역 토박이라는 나의 강점을 활용하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내 인터뷰를 통해 셋별문구 구슬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 국민학생 때 셋별문구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그 옆의 제일본식 사장님들도 함께했다. 학익동 토박이인 사장님들의 이야기와 가게의 마지막을 사진, 영상, 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고 SNS에 올렸다. 그리고 문구점 창고 깊숙한 곳에 먼지 쌓여있던 체육복을 구매해서 직접 입고 학익동에서의 마지막을 추억했다. 나의 마지막 하룻길을, 마지막이 될 학익동의 모습을 재밌게 풀어내고 싶었다. 흔히들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쓸쓸하고 슬픈 이미지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내 추억 속 학익3구역은 따뜻한 곳이었고, 내가 뛰어놀고, 친구들이 살고, 우리 아빠가 뛰어놀며 자란 동네기도 했다. 그래서 마지막을 슬픈 장례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90년대생의 추억을 고증하여 책가방에 실내화 주머니, 문구점에서 새롭게 구매한 학익초 체육복을 꺼내 마지막 하룻길 촬영을 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누구라도 어린 시절이 있어서일까 내 토래에게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소식이 끊겼던 동창들도 추억을 회상하며 연락을 주었고, 안면이 없는 학익초 출신 선후배, 나아가 이름 모를 학익동 주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계정의 기록 덕분에 스페이스빔의 제안을 받아 올해 4월에 <학익동>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했다. 전시 이후로 학익3구역 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들을 답사하고 알리는 투어를 10여 차례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켜!' 공모 및 현장 심사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이 떠나고 주인을 잃은 집들은 금세 무너지고 주저앉았다. 사람의 온기가 떠난 골목은 폐허가 되어 불법 쓰레기 투기로 지나다니기도 어려워졌다. 이미 제국제마 사택들과 국민주택은 보존할 수 없다. 누군가는 어차피 사라질 것들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묻지만, 나는 나의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

항상 나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한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사택이 헐리는 와중에 제국제마 사택은 덕분에 다른 사택에 비해 아주 행복한 사택이었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처음 '학익동 아카이브'의 시작은 개인의 만족이었다. 달라질 내 동네의 풍경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첩 삼아 기록했다. 하지만 나의 기억이 모두의 추억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며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더위에 지쳐도 한 번이라도 더 동네를 돌아보기 위해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선다. 



인천에서 요가를, 인천아쉬탕가요가 허윤진

글 정미리(편집위원) | 사진 조오다(편집위원)

인천아쉬탕가요가

📍 인천 중구 신포로35번길 38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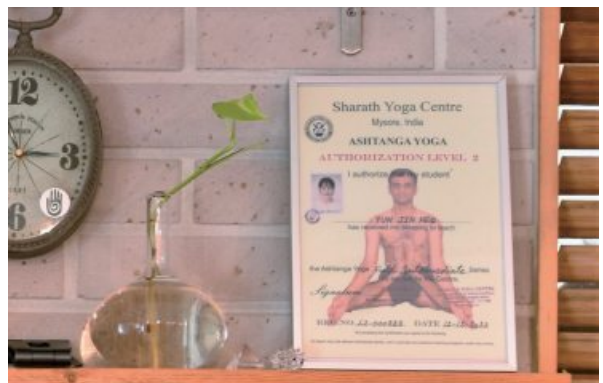
☎ 문의 0507-1439-1444

인터뷰가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홍예문으로 가는 길목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을 찾았다. 1층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음 수업 준비로 분주한 허윤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저를 인터뷰하러 오신다고 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치 우리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그는 자그마한 고체 향수를 건넸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인천아쉬탕가요가는 2017년 12월 오픈한 요가원이다. 아담한 규모지만 따뜻한 우드톤 인테리어로 옷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토목기사에서 요가강사로

올해로 만 48세인 허윤진 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요가를 시작했다. 출산 후 우울감이 찾아온 2007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처음 접했고 꾸준히 수련을 이어나간다. “요가를 하다 보면 계속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 난관들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요가에 빠지게 되었죠.” 요가를 시작하고 2년 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본격 요가 강사의 길을 걷게 된다.

요가 강사 이전에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토목기사. 건축업에 종사한 아버지를 따라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하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토목 일을 시작했던 것. 허윤진 씨는 6년간 토목기사로 일했던 경험이 요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부실시공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잖아요. 전부 철근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시멘트를 붓고 올리는 작업보다 건물의 토대가 되는 철근 작업, 즉 기초 작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토대가 되는 뼈가 가장 중요하죠. 뼈의 중심을 인지하고 위치와 정렬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 중구 송학동에 자리한 요가원. 요가 뿐만 아니라 심인물 테라피, 명상,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벽면에는 허윤진 씨가 작년 인도 마이슬에서 취득한 아쉬탕가 공인 인증 지도자 자격증이 붙어있다.

아쉬탕가는 정해진 수련 단계를 빠른 속도로 수행하는 정통 요가의 한 종류로 역동적이고 난도 높은 요가에 속한다. 2015년부터 아쉬탕가를 시작한 허윤진 씨는 지난해 말 인도 마이솔(mysore)에서 아쉬탕가 공인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내에는 총 51명의 아쉬탕가 공인 지도자가 존재하는데, 인천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허윤진 씨가 유일하다. 국내 아쉬탕가 공인 지도자의 대다수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인천 아쉬탕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있어요. 덕분에 사바사나(송장자세)를 '사바사나'라고 발음하는 이유도 발음이 연성되기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범어 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요가 용어에 사용되는 인도 고전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허윤진 씨는 언어뿐만 아니라 싱잉볼, 해부학, 명상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요가 강사인 동시에 학생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스승이 있는 서울 목동에서 새벽마다 수련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의 허윤진 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구 송학동의 작은 요가원

부산에서 나고 자란 허윤진 씨는 2002년 결혼하면서 인천 중구 송학동으로 이주하고 21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 현재 요가원이 있는 건물은 일본식 가옥 두 채를 헐어서 지었는데, 1층은 요가원이고 2층은 허윤진 씨 가족이 산다. “집과 직장인 한 건물에 있으면 단점이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은 걸요. 어떠한 가식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저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의미라 매 순간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알려줄 수 있는 만큼, 수업할 수 있으니까요.”

문득 궁금했다. 아쉬탕가 공인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요가원을 서울로 옮길 생각은 없었는지 말이다. 아무래도 수요가 높은 곳이 커리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을 테니까.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에요. 이곳이 요가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공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를 준다가나 스스로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인천아쉬탕가요가는 요가뿐만 아니라 싱잉볼 테라피, 한의사 특강, 명상 원데이 클래스 등 업계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연다. 허윤진 씨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사람들을 이쪽 지역으로 유입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중구가 유독 다른 구에 비해 발전이 더뎌요. 하지만 이 말은 곧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요가하러 왔다가 이 동네의 매력을 느끼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요가원이 잘 안 돼도 좋으니 중구가 발전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현재 파주, 시흥 등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허윤진 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동네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 비율이 높은데, 과거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껏 자신과 꼭 함께한 덕분이라고. 문득 인터뷰를 위해 맨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다. 만나자마자 고체 향수를 선물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허윤진 씨가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천기자수첩

제 3 호 글·사진 노승환(MBN 기자)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집이나 ‘때려’지으면 됐지

—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앞마당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

멋지지 않다. 근사하지 않으며 그러니 특별하지 않다. 인천시청이 생긴 1985년이나 2023년이나 인천시청 앞은 늘 그랬다. 서울로 치면 이곳은 광화문 일대다. 허나 인천시 청사가 있다는 점을 빼면 이곳이 인천의 중심지라는 ‘책무’에 걸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는 사람은 안다. 2000년대 후반까지도 명색이 ‘구월업무지구’라고 명명된 인천시청 앞 45만 8천㎡의 절반 가까이는 비어 있고 방치됐다.

태반은 흙바닥에 ‘열기설기’ 가설 율타리를 두른 사설 주차장이었다. 운 좋으면 허름한 포장마차가 있었을 뿐이다. 그 사이사이 골목길에선 곳곳에 보도블록이 깨지고 인도에 짝짝금이 가고 잡초가 무성해도 몇 년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10년, 그 빈 땅에 ‘여긴 원래 이러려고 비워둔 땅’이라는 듯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순식간에 들어섰다. 이 글은 그래서 텅 빈 아스팔트 광장으로 시작해 결



▲ 인천시청 잔디에서 바라본 시청 앞. 이 사진에는 모두 13개의 건물이 찍혔는데 그중 8개 건물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국 난개발로 종지부를 찍은 인천시청 앞 38년의 허망한 감상문이다.

“여기 왜 이래?”

5년 전쯤, 서울에서 한 손님이 왔을 때다. 이 감상문은 거기서부터다. 함께 밥을 먹고 인천시청 앞 골목을 이리저리 걷던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근데 여기 왜 이래? 왜 다 빌라야? 인천 뭐 우리나라 3대 도시라며?”

그가 말한 ‘빌라’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변종’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리킨 말이었다.(이 글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통칭한다) 그 집들은 외관만 조금씩 다를 뿐 골격은 거의 같다. 땅이 100평이면 건물이 90평을 차지하고 흔한 놀이터도, 손바닥만 한 공원도 없으며 주차장은 당연히 턱없이 모자란 형태 말이다. 그렇게 뻥뻥하게 ‘때려’지은 그 집들을 그는 빌라라 불렀다.

일리 있는 통칭이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오래된 동네에 가보라. ‘어떻게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지?’ 싶은 빌라들이 3~5층으로 딱 그렇게 지어져 있다. 건물이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놀이터도 공원도 없고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란다. 그걸 15층, 20층 높이만 높여놓은 게 인천시청 앞을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다.

언감생심 어찌 인천을 수도 서울에 비할까마는 ‘여기 왜 이래’라는 서울 손님의 질문은 순간 덕수궁과 플라자 호텔, 멋진 빌딩들로 둘러싸인 서울시청 앞을 떠올리게 했다. 순간 이런 인천이 무참했다.

물론 서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건 과하다. 엇비슷해야 비교도 한다. 월드컵 대표팀에게 졌다고 고등학생 축구팀이 무참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5개 광역시와 인천을 비교한다면 무참함은 다시 온당한 감정이 된다.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중 그 어디도 인천처럼 시청 앞이 도시형 생활주택들로 ‘점령’당하지 않았다. 광역시 5곳 모두 시청사가 도시의 가장



▲ 인천시청 앞의 한 대로변. 빌딩이 아니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인천시청을 중심에 두고 반경 1km 지역에 원을 그려보기를 바란다. 오직 통념에 기반해 ‘중심가’라고 부를만한 번듯한 빌딩은 다섯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그 넓은 지역이 ‘완벽에 가까운’ 주거지역이다.

중심에 자리한다는 점은 인천과 같으나 아파트나 주상복합 ‘단지’가 있으면 있었지 인천처럼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시청사 앞을 뻥뻥하게 차지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놀라운 건 광역시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인구와 도시 면적, 경제 규모 모든 면에서 인천의 채 절반도 안 되는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오산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군포시·안양시·안산시 중 어디든 좋으니 아무 곳이나 가보라. 그 어디도 인천처럼 시청 주변이 도시형 생활주택들로 가득하지 않다.

21세기, 인천은 대체 어떤 도시인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 보았다. ‘구월업무지구’ 45만 8천㎡의 땅에 있는 건물 170동 중 64개 동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다. 대부분은 최근 10년 사이 지어졌다. 1987년 이름도 그럴싸하게 구월 ‘업무’지구라고 지정됐지만 20년 넘게 태반이 텅 빈 채 방치된 땅에 그 집들이 지어졌다.

멀쩡히 있던 건물이 헐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올라간 경우도 여럿이다. 인천시청 앞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고급 식당이던 영빈관, 복요리로 유명했던 조가복집, 외빈들을 모시던 동원참치, 단골들이 줄 섰던 구월생삼겹, 새



▲ 2023년 촬영된 인천시청 앞.

건물이던 흑돈가 등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지어졌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인천시청 앞을 차지한 변곡점은 대략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쯤이었다. 정부가 주택 규제를 풀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때는 2009년이었으나 대략 2014년까지 인천시청 앞엔 새로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인천 2호선 개통을 1~2년 앞둔 시점부터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는 '21세기, 인천은 대체 어떤 도시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답은 아주 쉽다. 거대한 베드타운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만 돌아보자. 화학공장이 있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대 70만여 평 땅이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됐다. 인천 용현동과 학익동에 있던 화학공장 30만여 평 역시 통째로 아파트 단지가 되고 있다. 국제업무단지를 표방했으나 과거 동아매립지였던 청라동 일대 540만 평도 그저 아파

트 단지가 됐으며 인천 밖의 기업을 데려와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개발한 가정오거리와 도화오거리 일대 역시 그저 아파트 단지가 됐을 뿐이다. (이 두 곳엔 정부 지방청사와 인천시 제2청사가 들어섰거나 그럴 예정이나 가만히 보면 인천 다른 곳에 있는 기관을 옮기는 것이다. 옮긴 기관들이 원래 있던 곳은 속절없이 쇠퇴하고 있다. 아랫돌 빼 윗돌 놓기다.)


20년보다 더 오래전 인천은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공업은 애저녁에 쇠퇴했다. 그 빈 자리를 채운 건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집이었다. 인구가 300만 명에 가깝고 광역시청이 있으며 도시계획이 정한 기능이 업무지구인 곳에 지하철이 새로 생겼으면 누군가 잠은 어디 다른 데서 자도 이곳엔 일을 하러 오는 게 상식이다. 허나 인천시청 앞엔 자고 나면 생기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뿐이었다.

인천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괜찮다면 괜찮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아니니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사람은 인천에선 잠을 자고 일과 문화생활은 서울 가서 하겠다면 추후도 관여할 수 없다. 이 글이 문제 삼는 건 중앙정부와 인천시 정부의 도시계획이다.

인천만 해도 인천의 도시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못해도 수천 명의 공무원이 관여돼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인천에서 저명하다고 알려진 전문가가 20명이 넘는다. 법이 아파트를 30층까지만 짓게 허용할 때 법대로만 하자면 도시계획은 필요 없다. 법의 허용치보다 규제를 더 해 사익 추구가 공익을 행여 침해하지 않게 하자는 게 도시계획이다. 허나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앞마당이자 인천의 가장 중심지에, 그것도 90%는 주거용지도 아닌 상업용지인 인천시청 앞을 ‘난개발의 표본’으로 꼽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한다면 대체 도시계획은 뭐하러 있는가.

이제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에 남은 땅은 거의 없다. 시청이 들어선 지 38년,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지부진했던 시청 앞 개발사에 췌기를 박았다. 이곳을 서울시청 앞처럼 누군가 찾아오고 싶은 멋지고 근사하고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일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선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기성세대로서 난 인천에서 태어날 후손에게 이런 ‘시청 앞’을 물려줘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런 인천시청 앞은 차라리 그 옛날 만국기 줄지어 선 텅 빈 아스팔트 광장일 때가 더 나았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라고 말하면 뼈아프다. 서울에서 온 손님에게 “인천 여기 왜 이래?”란 질문을 받고도 그랬다. 뼈아팠다. 사람이 말로는 속여도 얼굴로는 못 속인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얼굴인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점철’된 인천시청 앞도 그렇다. 인천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약간의 자조를 섞어야겠다. ‘그래, 인천이 집이나 ‘때려’지면 뭘지 무슨 ...’ 



▲ 1988년 촬영된 인천시청 앞. 당시 인천시청 앞은 거대한 아스팔트 광장을 가운데 두고 그 양옆은 지금과 달리 건물이 거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차라리 시청 앞은 텅 빈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글 양진채(소설가) 사진 그대사 엔터테인먼트



감독 추창민

출연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외

장르 드라마

개봉 2011.02.17.

시네마인천



어머니 당신은 여원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매번 흐린 눈동자로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어머니는 꿈꾸듯 혼잣말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 사람의 생을 생각합니다. 태어나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다시 그 가족이 분가를 하고, 또... 이 몇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생의 갈피가 겹으로 쌓여 있을까요.

어머니는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전쟁통에 이북에서 내려와 자전거 부품 보따리상을 하던 아버님을 만나고, 부평에 와서 자전거포를 열고 아이들을 키워내셨어요. 어렵게 집을 산 애기, 보증을 잘 못 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애기, 어떻게든 자전거포를 살리겠다고 자전거 본사에 찾아가 물건을 달라고 담판을 지었던 애기, 일꾼 세 명의 밥과 빨래를 해주며 가게를 지킨 애기. 인천5·3민중항쟁이 일어나자 인천에 전쟁이 터진다고 일꾼들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날 제대한 당신의 아들이자 나의 남편이 군복도 벗지 못하고 자전거 빵구를 때우며 일했던 애기는 이제 전설 같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그렇게 큰 공장에서 노조 일하던 사람이 왜 우리 애랑 결혼하려 하느냐고 못마땅해서 따지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또 손등에 잡힌 주름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냐고 한탄하던 모습도, 젊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직도 보고 싶다고 하던 모습도, 가게 뒤편 방에서 주무시며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못해 섭섭해하셨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이 모든 기억에 우선하는 건, 누구보다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자식들 호령하고 여든이 넘어서도 은행 일을 보고 빚을 갚고 대출을 받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사 때 그리 무섭던 어머니가 어느 저녁, 끼고 있던 틀니를 빼자 보였던, 입이 움푹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날, 틀니로 견고하던 모습이 아니라 순한 할머니 같은 모습이 보였고, ‘다정하다’는 말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고 돌아올 때마다 늙음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아흔세 살의 어머니는 예전의 내가, 우리가 알던 어머니가 아닙니다. 치매가 오기 전의 어머니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원하던 삶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다음날 비 예보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붉은 노을이 지는 걸 보다 문득 더없이 쓸쓸해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봤습니다. 강풀 만화작가를 좋아해서 매주 기다려가며 만화로 봤지만 정작 영화관에서는 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영화는 노년의 네 사람의 사랑과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순재(김만석 역)와 윤소정(송이뿐 역), 송재호(장군봉 역)와 김수미(조순이 역) 배우가 진한 연기를 펼칩니다. 만석은 새벽마다 고물 오토바이를 몰며 우유 배달을 합니



다. 이들 네 명 중 유일하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생활도 그리 궁핍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욕이 먼저 나가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는 고집불통 영감입니다. 그런 만석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러 오토바이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다 바퀴에서 튀어 오른 돌이 반대편에서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내려오던 송 씨의 이마를 맞춥니다. 이때만 해도 만석은 사과논커녕 기세등등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다 우유 한 팩을 건네주게 되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큰소리를 치는 만석이 이제껏 살아온 모습입니다. '다정하게'란 말이 무슨 귀신 씌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할 사람입니다. 만석은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내에게도 거칠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된 뒤에도 그는 늘 세상에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는 자기 자신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보잘것없는 사내인 자신을 인정하는 게 싫어서 늘 큰소리를 치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

러나 언덕길에서 만난 송이뿐에게 사랑을 느낀 만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폐지를 줍는 송 씨를 위해 우유 팩을 모아다 주고, 봉투 안에 우유 한 팩을 담아주고, 눈이 오는 날 비탈길에서 리어카가 미끄러져 송 씨가 다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독거노인이자 이름도 없이 송 씨로 불려 왔던 송 씨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고 송 씨에게 송이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만석이 송이뿐이 글을 모른다는 걸 모르고 데이트 신청 편지를 보냈다가 뒤늦게 편지 내용을 알고 약속 장소에 나간 송이뿐에게 저녁을 먹고 나타난 것처럼 능청을 떨지만, 추위에 멈추지 않는 콧물은 어찌지 못합니다. 사랑을 하게 된 만석은 괴팍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촌데레로 변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만석에게 송 씨는 어떨까요? 송 씨 역시 남편의 폭력과 아이의 죽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일도 사랑을 느낄 일도 없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만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서툰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많지만 모두 분가했고, 제 살기 바쁩니다. 아무도 이 돌을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장군봉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홀로 살뜰하게 치매 아내를 돌봅니다. 그러나 늦잠을 잔 어느 날 치매 걸린 아내가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게 되고, 한겨울 아내 조순이는 내복에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우연히 조순이를 발견한 만석은 그녀에게 패딩점퍼도 내어주고 신발도 내어주며 송이뿐과 집을 찾아주려 애씁니다. 그런 인연이 모여 송 씨는 장군봉에게 글을 배우고, 그의 아내 조순이를 돌봐줍니다.


조순이가 하혈을 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장군봉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걸 모르고 부모님 집에 모인 자식들은 혹여나 부모를 모실 상황이 될까 서로 핑계를 댑니다. 장군봉과 조순이는 서로 꼭 손을 붙들고 죽음을 맞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며 송이뿐은 자신에게도 닥치게 될 만석과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짧지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사랑이었는데 그 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송이뿐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든 만석은 송이뿐과의 아름다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을 생각합니다. 청춘의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노년의 사랑 말입니다. 만석과 송이뿐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송이뿐은 평생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겠지요. 만석도 여전히 고집불통 과묵한 노인네일 테고요. 사랑이 아니라면 그 나이에 마음속 수줍음이 다시 피어나고, 누군가를 설레며 기다리는 날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며 미소지을 때 그 마음속은 노인의 늙음이나 죽음이나 아니라 생의 충만

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저 먼 나라에 홀로 서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 생애도 가슴 설렜던 사랑이 존재했던 사람이란 걸 잊지 않을게요. 생애 지쳐, 지금은 비록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노인이라는 통칭으로, 환자라는 이름으로도 인격이 무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당신이 살아온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있는 현재를 증거하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니깐요. 잊지 않을게요.

이번엔 영화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의 삶 자체가 인천의 원도심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 지원과 인천 촬영 제작이 지원됐다고 해요. 김만석과 송이뿐이 만나는 가파른 언덕길은 미추홀구 송의동 언덕에서, 김만석이 송이뿐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켜 주는 주민센터는 옹현3동주민센터에서 촬영되었고요. 또 장군봉이 치매에 걸린 아내가 하혈까지 하고,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알고, 혼자 남아 살 용기가 없다고 만석에게 털어놓는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이네요. 영화의 60%를 인천에서 촬영했다는 내용을 몰라도 이 영화는 인천이 아닌 곳까지 인천처럼 보이게 해요. 만석의 손녀가 고봉밥을 차려주는 송이뿐의 밥을 모두 먹고 소화제를 사 먹는, 새벽 우유 배달하는 이를 위해 가로등을 잊지 않고 켜놓는 그런 곳이 인천이거든요.

이 영화가 2011년에 개봉됐으니 10년도 훨씬 전에 촬영되었네요. 어쩌면 그 골목길, 그 동네를 찾았다가 아연해질지 모르겠어요. 요즘 원도심은 원도심만의 가치가 아니라 재개발로 무조건 부수고 아파트를 세우니 말이에요. 우후죽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고 골목이 사라지고, 이웃 간에 얼굴 볼 일도 없고, 노인은 모두 요양원에 계시고, 아이들은 종일 학교와 학원을 돌고, 부모는 돈을 벌기 바쁘고, 지금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만석의 오토바이 바퀴에서 튀어 오르던 돌멩이가 송이뿐의 머리에 맞아 사랑이 시작된 것처럼, 어디서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돌멩이가 튀어나와 우리 사회에 때리며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이렇게 살 아도 괜찮습니까?'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한국이민사박물관 윤현진 학예사와의 담화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포

전시기간 8.29. ~ 12.3.

전시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존에 재일동포 관련 전시를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민족교육, 다른 한 번은 우토로 마을이 주제였습니다. 재일동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동포인데, 정작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재일동포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교과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꼭 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으세요?

2부 '식민지 조선인에서 내지의 선인으로'에 있는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많은 조선인이 희생당했는데,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4부의 재일동포의 모국공헌에 대한 내용도요.

전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는 그들이 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전시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재일동포가 모국인 한국에 가지는 감정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여서 자료가 많지 않기도 했고, 요즘 재일동포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 전시의 마지막은 20대 재일동포 3명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꾸렸어요.






 囍


1970년, 승란씨의 결혼 이야기

전시기간 : 9. 19. ~ 12. 3.

전시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글 이지영(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



이번 전시는 '1970년 5월 사내 커플이었던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우리가 흔히 70년대 결혼식이라면 중매로 만난 남녀가 전통 혼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다소 생경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잡지에 실린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연애 결혼이 중매 결혼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예식장에서 드메¹⁾를 하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신혼여행은 결혼 과정의 마지막 절차로 생각하여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이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월에 개최될 전시는 이 커플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현재와 비슷하지만 다른 70년대 혼인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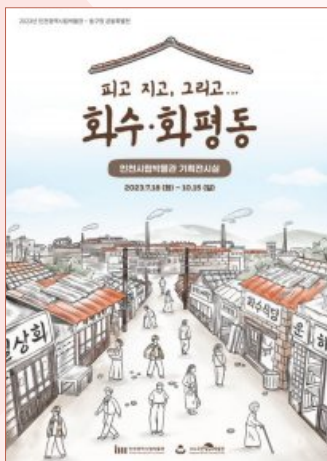


드메

love

요즘 결혼 준비에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 웨딩드레스 고르기, 결혼식 메이크업'을 줄여 '스드메'라고 한다. 1970년대는 스튜디오 웨딩 촬영이 없어 '드메'로 표기했다.

EXHIBITION



피고 지고, 그리고... 화수·화평동

도시화 속에 사라져가는 화수·화평동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

7. 18. ~ 10. 15.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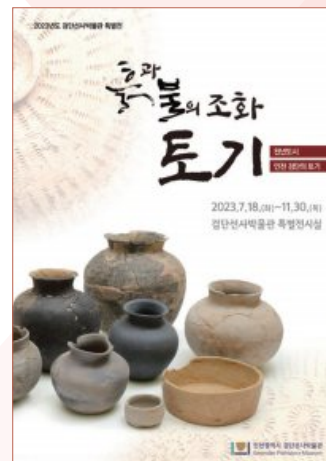


2023 도시를 보는 작가전 '치유의 숲'

복잡한 도시 안에서 발견한 치유의 숲을 표현한 설치·영상 작품 전시

6. 20. ~ 10. 22.

인천도시역사관 자유팔, 소암홀, 아암홀



흙과 불의 조화, 토기

검단신도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토기

7. 18. ~ 11. 30.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기관	전시명	전시내용	전시기간	전시장소
인천 시립 박물관	동상이몽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해석한 청동향로	9. 8. ~ 11. 12.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수거했어 오늘도	(대관전시)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	11. 15. ~ 11. 28.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소리를 전하는 기계, 덕률궁(가제)	개항기에 전해진 전화기의 변천 과정	23. 11. 29. ~ 24. 2. 25.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세계적인 힐링아트 전탕글 회원 전시회	(대관전시) 힐링아트 전탕글 소개	12. 1. ~ 12. 30.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새뽕 - 새로운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새로운 물건·공간·상황 등 처음 마주하는 무언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23. 12. 19. ~ 24. 2. 12.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신시모도 섬마을박물관	삼형제 섬 신시모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	23년 하반기 개관 예정	신시모도 섬마을박물관
송암 미술관	서예를 감상하다	예술작품으로서의 서예 감상 및 체험	23. 9. 27. ~ 24. 3. 31.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인천시립박물관 2023년도 학술회의 <박물관 소장 자료로 읽는 인천> 10. 27. 금요일 14~17시,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EDUCATION

기관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대상	신청방법
어 린 이	인천 시립 박물관	가재! 박물관으로	전시실 활동 및 나만의 유물장 만들기	10. 14 토요일 14 ~ 16시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10. 4 ~ 10. 11 홈페이지 선착순
				11. 11 토요일 14 ~ 16시		11. 1 ~ 11. 8 홈페이지 선착순
				12. 09 토요일 14 ~ 16시		11. 29 ~ 12. 6 홈페이지 선착순
	송암 미술관	서예를 통한 예절 교육	서예 수업을 통한 예절과 덕성 교육	11. 5 ~ 11. 26 매주 목요일 10 ~ 12시 / 14 ~ 16시	초등학생 ~ 중학생	10. 16 ~ 11. 1 홈페이지 선착순
	검단 선사 박물관	주말N박물관 - 꼭꼭 숨어라 동물들이	향초 방향제 만들기	10. 14 토요일 10 ~ 12시	6세 ~ 초등학교 2학년	홈페이지 선착순
				11. 11 토요일 10 ~ 12시		
				12. 09 토요일 10 ~ 12시		
		주말N박물관 - 선사랑 놀자!	3D펜 활용 만들기	10. 14 토요일 14 ~ 16시	초등학교 3 ~ 6학년	홈페이지 선착순
				11. 11 토요일 14 ~ 16시		
				12. 9 토요일 14 ~ 16시		
	인천 도시 역사관	시골 쥐를 부탁해	어린이 전시 관람 및 시골 쥐 가면 만들기	11. 1 ~ 12. 15 매주 수 / 금요일	5 ~ 7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9. 4 ~ 9. 15 홈페이지 선착순
		Hi, 인천분식	인천 최초의 음식 관련 활동지 학습 및 만들기 체험	9. 23 토요일 10 ~ 12시 / 14 ~ 16시	6세 ~ 초등학교 6학년	9. 11 ~ 9. 15 홈페이지 선착순
				10. 28 토요일 10 ~ 12시 / 14 ~ 16시		10. 16 ~ 10. 20 홈페이지 선착순
성 인	인천 시립 박물관	2030박물관클라쓰 - Fall in 오운완	등산 미니게임, 인문학 강연, 아간 등산 체험	9. 23 토요일 17시 ~ 20시 30분	20 ~ 30대 성인 30명	9. 4 ~ 9. 17 홈페이지 선착순
	송암 미술관	〈서예를 감상하다〉 갤러리 토크 - 송암 아카데미	특별전 준비과정과 유물의 속내	10. 11 ~ 10. 25 매주 수요일 19 ~ 21시	인천 시민	홈페이지 선착순
			중국서예사를 통해 본 서예 5체의 발달과정 훑어보기	12. 6 ~ 12. 20 매주 수요일 19 ~ 21시		
	검단선사 박물관	특별전 연계 학예사 전시 해설	〈흙과 불의 조화, 토기〉 유물 해설	10. 14 / 11. 4 토요일 11시 / 13시	인천 시민	당일 선착순 30명
	한국이민사 박물관	영화, 재일동포 역사를 기록하다	이민사 토크콘서트 + 특별전시 투어	9. 15 금요일 3 ~ 6시	인천 시민 40명	8. 26 ~ 9. 13 홈페이지 선착순
가 족	송암 미술관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대불호텔과 중화루 탐구 및 미니어처 만들기	10. 21 토요일 10~12시	초등학생 동반 가족 회 당 9팀	10. 9 ~ 10. 13 홈페이지 선착순
				11. 18 토요일 10~12시		11. 6 ~ 11. 10 홈페이지 선착순
				12. 16 토요일 10~12시		12. 4 ~ 12. 8 홈페이지 선착순
	오손도손 미술관		도자기 학습 및 달력 만들기	10. 7 / 10. 21 / 11. 4 / 11. 18 토요일 오전 / 오후	회 당 초등학생 동반 가족 10팀	9. 18 ~ 9. 22 홈페이지 선착순
	검단 선사 박물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빚어요	특별전 연계 토기 만들기 체험	9. 23 토요일 13시 ~ 14시 30분 / 14시 30분 ~ 16시	회 당 초등학생 동반 가족 6팀	9. 18 ~ 9. 20 홈페이지 선착순
				10. 28 토요일 13시 ~ 14시 30분 / 14시 30분 ~ 16시		10. 23 ~ 10. 25 홈페이지 선착순
11. 25 토요일 13시 ~ 14시 30분 / 14시 30분 ~ 16시				11. 20 ~ 11. 22 홈페이지 선착순		



그때여서 가능했다

그랬다. 불국사 다보탑 돌난간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어도 뭐라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문화재 뒤에 붙는 수식으로 '보호' 아닌 '애호(愛護)'가 더 많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문화재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관광객들에게겐 최고의 포토 스팟을 아낌 없이 제공해 주던 친근한 존재였다.

1965년 초가를 여행가 김찬삼의 카메라에 담긴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모습이다. 김찬삼은 그 해 수도여자사범대학교(지금 세종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전국 답사 여행을 시작했다. 답사 여행에 앞서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 최대 규모의 고인돌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고인돌 위 까까머리 꼬마들, 그곳에 오르기 위해 열기설기 만들어 걸쳐놓은 나무 사다리가 정겹다. 오직 관람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문화유산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다. 지금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겠지만, 그때여서 가능했다.